

이창수, 이 그 빛

LEE Chang Soo, Luminescence, Here and There



이 그 빛 BL_3
(방금 있다가 지금은 없네.)
2017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20x180cm

전시개요

전 시 명 : 이창수, 이 그 빛

전시기간 : 2018년 7월 20일(금) – 8월 12일(일), 24일 간

전시장소 : 학고재 전관 (본관, 신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사진 33점, 영상 1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80720-20180812_이창수, 이 그 빛

1. 전시개요

학고재는 2018년 7월 20일(금)부터 8월 12일(일)까지 **이창수**(b. 1960, 서울) 개인전 《이 그 빛》을 연다. 이창수가 지리산을 주제로 선보이는 전시는 《움직이는 산, 지리(智異)》(2008, 학고재)와 《숨을 듣다》(2009, 성곡미술관)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창수는 2000 년도에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겨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리산 섬진강을 주제로 세 번의 전시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전시는 초심에 마침표를 찍는 전시다.

이창수의 작업은 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지우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는 자연을 매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극도로 미시적인 세계에 몰입하여 살핀다. 상투적인 이미지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대상의 순수한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섬진강 수면의 빛을 촬영한 33 점의 사진과 1 점의 영상을 선보인다. 지난 2014년 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 개인전에서 원경의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던 시선을 매우 가까운 근경의 미시적 세계로 옮겼다. 대상과 작가의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졌다. 자연 본연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 관찰하고자 한 이창수의 의도가 돋보인다. 전시는 학고재 전관에서 열린다.

2. 전시주제

대상 낮설게 보기 - 미시적 세계로, 본질을 향하여

장대한 히말라야의 설경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 이후 4 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¹ 그 동안 이창수의 시선은 가장 가까운 근경 내부의 초(超)근경, 미시적 세계로 옮겨 갔다. 시선의 방향이 극적으로 변화했지만 작업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는 한결같다. 바로 대상의 겹데기 내면에 꿈틀대는 본질에 관한 관심이다. 이창수는 극도로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낮설게 바라보는 일을 통해 외피 아래 숨은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섬진강 강변에 선 이창수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잊으려 노력했다. 대상의 본연을 표출하는 일은 곧 자신을 지우고 비우는 과정이다. 스스로 인식의 한계를 떨쳐내야 비로소 상대의 겹데기 안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법이다. 자연에서 가장 온전히 빛의 반사와 움직임에 관찰할 수 있는 매체가 강물의 표면이다. 흐르는 강물 위에서 빛은 미묘하게 흘러가고 찬란하게 부서진다. 빛의 피부를 입은 물의 근육은 하나의 몸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이 된다. 이창수는 자연의 신비와 위엄 앞에서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는다.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자신의 본연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찰나의 우연성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거리에 따라 '낮설게 보는' 관점을 획득한 이창수는 카메라를 매개체로 하여 대상을 기록한다. 카메라가 작업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기기의 사양, 날씨와 광량 등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한 '우연성'이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창수는 작업 과정에서의 우연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대상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창수의 작업은 대상의 기운과 정체성을 한 장의 사진 안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흩어지는 미세한 물빛의 흐름을 포착해 다채로운 빛무리의 이미지를 얻어냈다. 빛의 무리는 끊임없이 춤추며 도시의 야경이 되거나, 빛의 폭포가 되거나, 불타는 유성과 찬란한 은하수가 되어 화면을 수놓는다. 미시적 세계에 깊이 파고들어 대상 내면의 드넓은 우주를 건져낸 결과물이다.

¹ 《히말라야 14 좌 사진전 "이창수 · 영원한 찰나"》(2014,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동명의 순회전을 같은 해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 주년 기념관에서, 이듬해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다.

3. 작품소개

이창수는 디지털 카메라로 대상을 촬영한다. 한 번에 다수의 이미지를 찍은 후 화면의 톤과 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진을 선별한다. 사진을 뒤틀거나 변형하는 등의 과도한 수정을 지양하되 푸른색, 노란색, 흑백의 세 개 카테고리 이미지로 이미지를 분류하여 색감을 조정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모두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기법으로 인화했다.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는 잉크젯 프린트의 한 종류로, 보존성이 좋고 세밀한 묘사와 깊이 있는 색상 표현에 탁월하다.

대표작품



*이 그 빛 BWL_1
(쉽 없는 시간)*

201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150cm

<이 그 빛 BWL_1 (쉽 없는 시간)>(2015)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의 시작점이 된 사진이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결의 움직임을 근거리에서 포착했다. 고운 진흙으로 빛은 듯, 붓으로 그린 듯한 회화적 표현이 돋보인다. 흐르는 물결의 풍부한 톤을 탁월하게 담아냈다. 세밀한 명암의 구조와 중첩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 그 빛 BL_3
(방금 있다가 지금은 없네.)*

2017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20x180cm

<이 그 빛 BL_3 (방금 있다가 지금은 없네.)>(2017)는 이번 전시의 대표작으로 꼽는 작품이다. 시선을 가까이 파고들면 물결을 이루는 빛 알갱이들의 움직임을 눈에 띈다. 흘러가는 빛의 운동을 포착하여 시간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빛 알갱이들은 저마다 다른 모양의 무지개 빛 궤적을 남기며 강물을 따라 흐른다. 무수히 빛나는 빛줄기들이 각기 다른 선과 면을 이루며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 그 빛 YL_6
(애써 건너가니)*

2015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50x100cm

<이 그 빛 YL_6 (애써 건너가니)>(2017)는 밤하늘 별무리를 떠올리게 하는 색상의 작품이다.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휘몰아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인상 깊다. 이창수는 자신의 사진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를 바란다. 작품의 해석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4. 작가소개

이창수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에는 검도부 활동을 하며 검도 특기생으로서 입시 준비를 했다. 대입에 한 차례 실패한 후 마음을 달래려 시작한 사진이 평생의 업이 되었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후 16년간 뿌리깊은나무, 국민일보, 월간중앙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했다. 2000년, 지리산 자락 악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인생의 절반을 기자로서 열심히 살았다면 나머지 절반의 인생은 자연과 벗하여 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늘 바라던 녹차 농사를 지으며 사진 작업에 몰두했다. 이창수는 지리산에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갔다고 말한다. 자연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닫고 올바르게 죽어가는 삶을 살겠다는 신념이다.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새로이 바라보는 일을 통해 인생의 정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는 이창수의 작업 방식과도 맞닿는 지점이 있다.

2008, 2009년에 각각 학교재와 성곡미술관에서 지리산을 주제로 개인전을 선보였다. 2011년에는 700여 일에 걸쳐 히말라야 설산을 촬영했다. 2014년, 예술의전당에서 《히말라야 14좌 사진전 "이창수·영원한 찰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중의 큰 관심에 힘입어 이듬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같은 전시를 재차 선보이기도 했다. 『내가 못 본 지리산』(도서출판 학교재, 2009),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터치아트, 2008)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 외래교수로 재직하며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 지리산을 주제로 한 글과 사진을 매주 기고한다. 한미사진미술관 등의 기관에서 다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5. 전시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물낫을 응시하는 우주거울

이창수, 찰나의 계면(界面)에 새긴 빛 무리의 시학

김종길 | 미술평론가

어느 한 찰나의 실재를 엿보는 것은 돈오(頓悟)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실재가, 서로 살짝 닿았다가 스쳐간 풍경일지라도 그렇고, 불현듯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표정 따위가 떠올랐다가 삽시간에 사라져도 그렇다.

이창수는 오랫동안 그 실재의 순간들로 잠입해 카메라 거울을 열었다. 찰나생멸(刹那生滅)의 시간들은 찰나무상(刹那無常)의 환(幻)일 수 있기에² 그의 몸은 때때로 초감각으로 열린 우주로 되어야 했을 것이다. 2014년 6월의 《히말라야 14좌 사진전 "이창수·영원한 찰나"》는 그의 몸이 어떻게 자연과 '하나'의 합일을 이루며 찰나의 계면과 마주했는지를 보여주었다.³ 히말라야는 우주로 열린 '몸눈'(몸이 곧 눈이라는 것)이 카메라 거울을 열어서 비춘 승엄한 대자연의 실재였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그는 몸눈을 내려놓고 '마음눈'을 깊게 사유한 듯하다. 그에게 있어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일 수 없을 터이나, 사진을 박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몸눈과 카메라 거울은 이원론의 인식 체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카메라 거울은 세계를 비추고 몸눈은 그 비춘 것을 판단하지 않는가. 반면, 몸눈이 환하게 열린 상태에서 마음눈이 깨이면, 카메라 거울과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 일체로서의 시선이 된다. 마음카메라의 '눈거울'은 그저 실재와 마주할 뿐이다. (우주로 열린) 몸과 카메라, 눈과 거울이 모두 하나로 깨어서 비추는 그 상태를 '우주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주거울은 카메라의 눈거울이 된 이창수다. 사진을 박는 그 자신이 오롯이 우주거울이라는 이야기다. 이번 전시 《이 그 빛》(2018)은 우주거울의 '그'가 물낫의 빛 무리를 비추며 마음눈으로 새긴 빛살의 풍경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질문이 연기처럼 치솟아 맴돈다. 그 빛살 풍경의 실재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일까? 물에 잠겼다가 솟구치는 빛 그림자일까? 비추인

²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찰나마다 생겼다 멀하고, 멀했다가 생기면서 나아간다고 가르친다. 그것이 찰나생멸(刹那生滅), 찰나무상(刹那無常)이다.

³ <히말라야 14좌 사진전 "이창수·영원한 찰나">는 2014년 6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개최되었다.

것의 본성은 무엇일까? 흐르는 물과 솟구치는 빛을 구분할 수 없어 그것을 '물빛'이라 부르더라도 남는 것은 왜 그가 물빛으로 낮게 열려서 스스로 우주거울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한 생각, 우주거울의 순간들

마음눈을 열어서 그가 깨달은 한순간의 진리는 숭엄한 대자연의 실재가 히말라야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생각을 일으키니 모든 찰나의 순간들이 숭엄하였다. 삶의 초월성은 그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물은 심연(深淵)이어서 마음눈의 안팎을 꿰뚫어 보여주는 우물이었다고, 또 마음을 직접 가리키는 선(禪)의 뜨락이기도 했다.⁴

우주거울인 그가 물가에서 물을 비추며 행하는 첫 번째 의식은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그를 잊는 곳에서 그는 물이 일으키는 만행의 몸짓과 혼연히 일체가 되었다. 그는 이 물아일체의 순간들마다 마음눈의 셔터를 깜박깜박 감고 떴다. 옛 선사(禪師) 운문 문언(雲門 文偃, 865~949)은 실재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기만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라"고⁵ 했는데, 그의 움직임이 또한 그랬다.

《이 그 빛》의 사진들은 그가 어떤 풍경,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인식한 것들이 아니다. 물을 마음거울에 비추는 행위가 물을 인식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짓/눈짓'이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그는 물가에서 '스스로 잊기'의 과정으로 우주거울이 되는 순간들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의 물은 우주거울에 투영되어서 순수한 빛 무리의 물살/빛살로 탈바꿈되었다. 그것은 물성으로서의 물이 아닌 천변만화하는 공성(空性/眞如)로서의 물의 변신(술)이었다. 물이 빛 무리의 용오름으로 휘몰아가는 우주 은하의 한 세계가 찰나로 엮여서 '사진'(寫眞)이 되는 그 순간들!

그는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본성이 어그러짐[動念卽乖]을 경계했다. 그가 몸눈/마음눈을 열 듯 카메라의 눈을 열어놓고 우주거울이 되었던 것은, 그의 본성이 그에게 있지 않고 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찰나'를 한 주제로 사유했던 것은 자연만물이 모두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에서다. 물의 세계도 물 밖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한 세계의 우주이지 않은가. 물은 생명을 품고 낳아서 기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그 빛>은 한 생각을 일으킨 우주거울이 물의 본성을 투영시켜서 이것과 저것을, 이빛과 그 빛을 하나로(一如) 박은 순간들의 풍경이라 할 것이다.

물여울의 빛살, 빛 무리의 시학

⁴ '뜨락'을 쓰면서 일본 교토의 다이도쿠사(大德寺) 다이센인(大仙院)의 가레산수이(枯山水)를 떠올렸다.

⁵ A. 벵크로프트 지음, 박규태 옮김, 『선, 실재를 직접 가리키는 것』, 평단문화사, 1986. 5 쪽.

사진이 되어서 인화된 물의 풍경들은 굽이치고 여울진다. 물비늘의 흔적들은 정지된 활동을 품어서 활동운화(活動運化)의 단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단면들에서 물의 근육, 물의 눈빛, 물의 눈물, 물의 침묵, 물의 춤, 물의 노래, 물의 문자를 읽고 듣고 보고 느낀다. 그 안에서 빛 무리는 물면을 타고 놀면서, 물면에 어리고 튕기면서 야단법석이다. 빛 무리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물의 풍경들은 빛의 근육, 빛의 눈빛, 빛의 눈물, 빛의 침묵, 빛의 춤, 빛의 노래, 빛의 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물빛의 언어는 물살이면서 빛살이요, 물결이면서 빛결인 카오스모스의 불립문자(不立文字)일 것이다.

사진들 중 어떤 것들은 '멈춤'(止)을 지향한다. 멈춤으로서의 물의 실재는 우주거울에 되비쳐 한 찰나의 영속이 된 것이다. 전시장에서 관객은 그 물의 현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봄'(觀)은 찰나로 존재했던 물가의 우주거울[작가]이기도 해서, 관객은 스스로를 잊어버린 우주거울이 곧 '관객 그 자신'으로 되살아 오르는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체험이 곧 물의 실재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관객이 관객으로서 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은 그가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 자리에서 마음눈이 떠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사진들 중 어떤 것들은 '흐름'(流)을 지향한다. 흐름으로서의 물의 실재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또한 있는 그대로를 사유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떠오르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물빛의 눈빛과 '빛그늘'(日影)이 한 데로 어울리면서 수천수만의 빛 무리를 띄운 사진들에서 그 미묘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빛 무리는 물면에 어린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솟아오른 반짝임이다. 휘황한 물의 몸이요, 물의 영혼이다.

사진들 중 어떤 것들은 '결'(波)을 지향한다. 그 결은 물결이고 바람결이며 빛결이다. 물무늬는 돌 하나가 일으키는 결이기도 하고, 물이 물로 부딪히고 빛이 빛으로 튕겨서 일어서는, 아니 눕고 둥굴고 쏟아지는 우주 은하의 흰 폭포수이다. 그것의 포말이다. 결의 이미지를 두고 물(본성)과 돌(상념)과 실재를 의문하지 말자. 흰빛 무리의 난장은 잡념이 가득한 우주거울이 아니다. 그것은 한바탕 소리 내어 웃는 '웃음'(笑/素)에 다름 아니다. 흰빛 무리의 난장이 '몸'에서 크게 터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 바로 그 순간이 곧 돈오이다.

이창수는 우주거울이 되어 물낫을 가만히 응시했다. 응시하는 순간들은, 그 찰나의 시간들은 스스로를 잊는 시간이었고, 비우고 지우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물빛에서 떠올린 사진들은 찰나의 계면에 새긴 빛 무리의 언어요, 그 언어로 쓴 시학이었다. 우리는 물의 이미지를, 빛의 이미지를 보고 있으나, 그가 우주거울에 박은 것은 빛의 언어로 쓴 물의 경전일 것이다. 나는 다만, 그 경전의 서문을 읽은 정도일지 모른다. 본문은 관객의 몫이다.

6. 작가약력

이창수

1960 서울 출생
1985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1985~1988 뿌리깊은나무 사진기자
1988~1989 국민일보 사진기자
1995~2000 월간중앙 사진기자
현 국립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 외래교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8 이 그 빛, 학교재, 서울

2015 히말라야 14 좌 사진전 "이창수 · 영원한 찰나",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4 히말라야 14 좌 사진전 "이창수 · 영원한 찰나",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진주
2009 이창수 <숨을 듣다>, 성곡미술관, 서울
2008 움직이는 산, 지리(智異), 학교재, 서울

저서

『지리산에 사는 즐거움』, 터치아트(2008)
『내가 못 본 지리산』, 도서출판 학교재(2009)
공저, 『시인과 스님, 삶을 말하다』, 메디치 미디어(2009)
공저, 『소울 플레이스』 도서출판강(2012)

소장

한미사진미술관 (가현문화재단)